

내포신도시, 새로운 도약과 도민 화합의 초석이 되길

권희태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올해 말이면 충청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된다. 1896년 공주에서 문을 연 충청도청이 1932년 대전시 중구로 이전한 지 80년만에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 비상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등지를 틀게 되었다. 대전에서의 80년 동안 충청도청은 충청권을 이끌어가는 중핵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청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대전직할시가 1989년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어 광역지방정부가 되었고, 올해 7월 1일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다. 이제 충청도는 충청권 만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마무리하고 내포시대에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충청도청이 내포신도시 시대를 맞이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충청도내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충청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부권과 그외 지역에 대한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제 충청도청이 중심부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15개 시·군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둘째는 환황해 경제시대의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충남은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고 또한 교역규모도 확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서해안시대, 환황해 경제시대를 얘기해 왔지만 충청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명실상부하게 환황해 경제시대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충남의 새로운 번영이 내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셋째는 충청도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내포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신도시를 지향하고 첨단산업도시, 통합형 행정도시, 건강복지도시 등

3가지 개발방향으로 건설되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도민들에게 문화, 의료, 복지, 교통기능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는 내포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21세기 시대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진 내포문화는 백제문화와 함께 충청권의 대표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충청도청이 내포문화권의 한 가운데로 이전함으로써 내포문화에 대한 활발한 조명과 함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는 도정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만나는 사람이 모두 도민이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도정시책과 관련이 있게 된다. 앞으로는 길가에 놓여있는 돌맹이 하나, 풀 한포기에도 눈길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도민과의 대화와 소통의 접점이 가까워졌다는 점일 것이다. 그동안 충청도청이 대전시에 입지함으로써 도민과 도정은 괴리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내 어디에서나 1시간대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제서야 비로소 충남도는 진정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충남과 국가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충청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있어서 도정의 한 축인 공무원들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과 다짐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그동안 대전광역시에서 누렸던 익명성의 혜택을 내포신도시에서는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내포신도시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언행 하나하나가 바로 도민들의 주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품위유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공직자로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에 대한 재무장도 필요하다. 구제역·집중호우 등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곧바로 재해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영농철에 일손이 부족하면 일손을 도와야 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1896년 공주에 도청소재를 두고 개도한 충청남도가 이제 80년 대전시대를 접고 도민의 품으로 되돌아간다. 이제 200만 도민과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충남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환황해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